

조계종 '한글통일법요집' 발간 두달

한글화 의지 실종?

홍보·인식 부족 속 중단 공식행사서도 외면

시범사찰 지정·행차교육 교재 채택 등 시급

지난 9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이 열렸다. 3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종교계 최초로 선포되는 환경의제였기 때문에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주요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종단 공식 행사'였다. 행사가 열리자 삼귀의를 거쳐 예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로 시작하는 한편 '반야심경'이 봉독됐다.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신 결립없는 대비심의 신묘법륜 열오소서..."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 남녀노소 불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글 '천수경'을 읊는다. 불자들 앞에는 <한글통일법요집>이 펼쳐져 있다. 봉은사가 '천수경'을 한글화한 것은 3년 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면 할수록 효용도가 높아져 갔다. 뜻도 잘 모르는 한문보다 한글로 의미를 되새기니까 의식 참여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의식의 한글화 대중화를 위해 3년 2개월간의 노력을

로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한 지 2개월.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 포교원측은 우선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의식(儀式)이 변하기 위해선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의 의식(意識)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일정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번역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법요집을 한글화할 때 국문학과 교수 등의 감수를 받았다. 하지만 원래의 뜻을 제대로 살릴 뿐 아니라 운율에 맞게 하기 위해선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포교단체의 한 관계자는 "종단 의식 부족"을 꼬집기도 한다. "종단 공식행사서조차 외면하는 현실에서 개 사찰이나 포교당에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리가 높다. 총무원이나 교구본사 공식 행사 때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의무화하면 자연스럽게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특히 행차교육원에서도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조계사·도선사·봉은사 등 도심 주요사찰을 시범사찰로 지정해 운영한 뒤 전체 사찰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비디오 테이프나 DVD 등 영상 자료를 제작해 사찰이나 불교단체에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불교방송이나 불교TV, 불교계신문사 등 불교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단 차원에서 한글 의식집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글통일법요집>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포교단체나 계층에 맞게 소책자로 만드는 등 <한글통일법요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빛고을불교아카데미 4면 | 10월 25일 오후 7시
지선 스님 '사유유관상'

도난 성보 무더기 회수

서울 광역수사대, 대행사 탕화 등 공개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이 10월 18일 압수된 도난불교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된 문화재를 취득·은닉해 온 사설 박물관장과 탕화전문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월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물급 도난 불교문화재 6점을 포함한 중요도난문화재 516점을 취득해 박물관에 전시 보관해 온 박물관장과 탕화전문가, 서예가 등 6명을 적발하고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1980년 해남 대흥사에서 도난된 영산회상도(1741년 작)와 신중도(1819년 작), 1980년 역시 대흥사에서 도난된 사천왕도(1775년 작), 1989년 예천 한천사에서 도난된 지장시왕도(18세기 제작), 1976년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된 향로, 1992년 도산 원 전담 불화사 범종,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육개서 등 총 15점이다.

수사를 지휘한 광역수사대 강일구 경감은 "피의자들이 선의의 취득과 소유권을 포기하지만 하면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모두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은 "광역수사대와 경찰의 공정한 수사로 압수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엔 압수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도를 포함해 6점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취득·은닉하고 있었던 H불교박물관이 정당한 소유권과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불교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2000년도 초에 박물관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것으로 전시실에 매일 전시해 놓은 불화가 어떻게 은닉·취득한 정당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법한 법률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두 등 도난 불교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M박물관은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사 직후 문화재청을 통해 관련 문화재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 준 상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선거제 폐지 대중공사로..."

선원수좌회, 중앙총회의원 추천철회 성명

조계종 선원수좌회가 제14대 중앙총회의원 간선직 선원 후보로 추천했던 영진(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스님과 범중(수좌회 설외분과위원장) 스님의 입후보를 철회하면서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종단 집행부와 중앙총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20일 대구 마하야나선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총회의

원 입후보를 철회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원수좌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총회의원 선거공포에 너무나 실망하여 총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한다"며, △기존 선거제도 폐지 △선정직 방식의 제도로 선거제도 개혁 △간선직의 공정하게 선출 △중앙총회의원후보들은 승가연합·불교발전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조용수 기자

진각종 새 총인 도훈 정사 추대

대한불교진각종 제 10대 총인에 도훈 정사경주 각성심인당 주교가 추대됐다.

진각종(총리원장 회)은 10월 19일 총인원내 총의회 회의실에서 제 3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의회의원 만장일치로 도훈 정사를 제 10대 총인으로 선출했다. 도훈 정사는 1933년생으로 1964

년 초대 총의회의 의원, 1974년 제 11대 총리원장, 1989년 총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01년 대종사에 품수됐다. 현재는 경주 각성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도훈 정사는 12월 초 인의회(진각종 원로들의 모임) 추대를 거쳐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총인 인사 2면 김주명 기자 jkim@buddhapia.com

"해외유출문화재 환수인력 1명"

강혜숙의원 국감서 지적

문화재청에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10월 17일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문화재청 해외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해외유출 문화재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상황"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응래 의원은 "지금껏 정부차원의 문화재 반환협상이 실패한 것은 외교담당부가 마땅히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를 주고받기 식의 협상은 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문화재 담당부서인 문화재청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홍준 청장은 "불교문화재 연구조사와 문화재 도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병철 기자

시방세계 9면
도선사 108사찰순례 첫날

한·일·대만 3국 전문가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복원 5면
해인사 시간판인경본 보급 6면
사찰순례 잘 하려면 19면
추사가 띄우는 편지 23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응각 스님 '아함경' 24~25면

도반의 향기 17면
홍성 용봉초 김주석 선생님

경전수행용 통한 깨달음 10대 강력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각성 스님
해심법경/10월 28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액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액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 상량, 영가천도, 불사)

보이차 紅茶園
친년보이차·진품차사호 찻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성명서

-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총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종도 여러분!

우리 조계 종단은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견성성불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과 불교 역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지금의 선거제도도 인하여 승가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금품과 선물이 오가고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가 등을 돌리게 하는 선거 풍토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맑고 청정해야 하는 승가를 혼탁케 만들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선원수좌회는 청정수행으로 일관해 오신 두 분의 수좌스님을 총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수좌회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현 총회의원 선거공포에 너무나 실망하여 총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총무원장스님과 집행부 그리고 중앙총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승가를 혼탁하게 하고 세속화 시키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인 대중공사를 통해 화합과 합의로 추대하던 전통적 방식의 제도로 환원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부득이 선출해야 한다면 총회 간선 선출위원회에서는 총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직능 대표에 대한 계파 간 나눠 먹기식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취합해 입법토록 한 원래의 취지를 살피서 간선 총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셋째, 총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작금 행위가 승가의 위상과 청렴성에 직결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승가의 화합과 불교의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진실 그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대처승 시절에도 정화와 개혁정신으로 청렴하게 살아오신 선배스님들이 신명을 바쳐가며 지키고자하셨던 대의가 무엇이었던지 다시한번 엄숙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곡하고 엄중한 경책을 무시하고 또다시 예전에 보인 바와 같은 혼탁한 선거양상을 재현하게 된다면 종도들과 신도들은 우리 불교교단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등을 돌릴 것이고, 전국선원수좌회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집행부와 중앙총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국선원수좌회대회 개최도 불사할 것입니다.

불기 2550(2006)년 10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